

요한복음 14:16-24 / 위로의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일어난 오순절 성령체험의 사건을 통해서 비로서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을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증거하는 몇 가지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1. 성령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요14: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

요한이 말하는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이며 ‘위로자’, ‘돕는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주술적인 그 어떤 마술적인 힘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니 돕고 위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자가 성령님이시다. 밥을 해서 우리 입에 떠 넣어주시는 분이 아니다. 밥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다. 공부를 해서 우리 머릿속에 컴퓨터 칩처럼 넣어주시는 분이 아니다. 공부를 할 때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어머니가 줄음이 올라와 커피를 타주시고 과일을 깎아서 지루하거나 힘들지 않도록 도와 주시는 것과 같다. 공부는 내가 하는 것이다. 진리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 늙고 병들거나 마음이 바뀌면 도움을 받을 수 없지만 성령님은 늙거나 병들지도 않으신다. 그리고 마음의 바뀌어서 빠지거나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것을 믿으라.

2.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14:17)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영이시다. 즉 진리의 소유자이시다. 그리고 진리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진리에게로 인도되는 자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8:31-32“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그러므로 성령님과 같이 사귀는 사람은 진리안에 거하는 사람이요, 그 삶이 통하여 진리가 드러나는 사람이다.

3.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요14: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

이것은 성령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성령하나님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시험때만 되면 부모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아가 생각나게 하고 답을 모를 때 생각나게 가르쳐다라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는가?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진짜 아이가 시험을 잘 봤다면 그것은 아이가 평소예 충실하게 예습 복습 잘하고 선생님말씀 잘 듣고 공부를 남들보다 더 많이 한 결과 일 것이다. 그러나 공부도 하지 않았는데 기도하고 난 뒤에 시험을 잘 봤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아이이거나 ... 그럴 것이다. 사람들이 노력하겠는가? 열심히 평소예 준비하겠는가? 이것은 진리를 진리 되지 못하게 하는 인간의 욕망이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싸구려 잡신으로 만들어 내는 결과밖에 안 된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와 일을 위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죽이지지 않았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법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 능력의 주님이시다. 그런데 결코 세상을 그런 식으로만 이끌어가지 않으신다. 주님은 공생애 동안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진리의 하나님”이심을 역설하셨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요15:10)



담임목사 : 김원기
(Pastor, Wonki Joseph Kim)

www.dongsanoflove.org

(교회) 9440 Balboa Bl, Northridge, CA 91325

☎ 818.518.5108(교회)